

‘문화수도’ 최대 난제 풀렸다

黨政 특별회계 설치 합의... 한나라당도 지원 약속

특별법, 9월 정기국회때 제정될 듯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재정운용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인 ‘특별회계’ 설치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10일 합의했다. 또 한나라당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제정 지원을 약속함에 따라 광주 문화중심도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관련기사 3면〉

조배숙 국회 문화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김명곤 문화관광부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어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했던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당정간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전망도 밝아졌다.

특별회계 설치에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담보할 특별법의 핵심 조항인에서도 정부 부처간 이견 등에 막혀 관련 논의가 답보상태였다.

특히 기획예산처는 지금까지 ‘서민 주택 건설의 주택복권’ 같은 명확한 지원에 대한 부담을 느껴 특별회계 설치에 난색을 표해왔다.

그러나 기획예산처 장관까지 참석

한 자리에서 특별회계에 대한 당정 합의가 이뤄진 데다 여야도 지역 민심 등을 고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특별법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함께 이날 오전 광주시와 첫 정책협의회를 가진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광주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문광위를 통과한 만큼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수 한나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제회 정책위의장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광주시와 재정 조달 방법 등도 긴밀히 논의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차질없이 다음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여론과 시의 강력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라면서 “하지만 기획예산처가 문화중심도시 사업 자체를 축소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만큼 정부가 고려중인 문화전당 단계별 착공이나 완공 연기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금호고속 ‘유·스퀘어’ 개관
주불교방송 사장, 김태홍 국회의원, 지병문 국회의원, 강정채 전남대 총장, 양형일 국회의원, 김동철 국회의원, 한사람 건너 이원태 금호산업 사장, 김진영 광주일보 사장.

금호고속은 10일 각계인사와 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스퀘어(U·Square) 개관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박삼구 금호아시아그룹 회장, 박광대 광주시장, 강박원 광주시의회의장, 박근자 광주예총 회장, 이상진 광주불교방송 사장, 김태홍 국회의원, 지병문 국회의원, 강정채 전남대 총장, 양형일 국회의원, 김동철 국회의원, 한사람 건너 이원태 금호산업 사장, 김진영 광주일보 사장.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고흥-광명 의회 8년결연 깨졌다

광명시장 망언 여파

이효선 광명시장의 망언이 결국 고흥군의회의와 광명시의회 간 우호결연 파기로 귀결됐다.

고흥군의회는 이효선 광명시장의 전라도 비하 발언과 영암군 등 전남지역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일부 파기 등 일련의 사태로 인해 더 이상 광명시의회와 자매결연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이를 9일 광명시의회에 전달했다.

고흥=대성수기자 dss@

뉴스프리즘 **한나라 ‘호남홀대’ 사과**

호남 품에 안기기 첫 행보 姜대표 “섬섬하게해 죄송”

근대화 이후 한국의 정치지형은 동고서저(東高西低)였다. 박정희 18년 집권으로 대표되는 영남의 특색은 그대로 집대중으로 대표되는 호남에 저개발의 그늘을 남겼다. 공화당 대 신민당, 민주당 대 경민당, 신한국당 대 국민회의, 한나라당 대 민주당의 구도는 대대로 ‘주류 영남’의 ‘주변부 호남’에 대한 차별과 홀대로 이어져 왔다. 이른바 ‘영남패권주의’다.

그 맥을 상속한 한나라당이 10일 당 차원에서 처음으로 호남에 ‘공식 사과’란 것을 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이날 낮 광주 금수장호텔에서 취임 한 달 기자 간담회를 갖고 “한나라당의 전신 이었던 정당 시절부터 최근 광명시장의 호남 비하발언에 이르기까지 호남 분들을 섬섬하게 해드렸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강대표의 말이 이시점에 의미를 갖는 것은 현재의 국내 정치지형의 변화에 있다. 호남사람들은 지금 여지껏 겪지 못한 정치적 냉대상태에 놓여있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의 강도는 DJ 시절과 비교가 안되게 무르다. 참여정부에 대한 지지 역시 변색됐다. 목표를 준결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 박근혜씨가 지난 5월 광주 총장로서 지방선거 지원유세를 할때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자 이를 나무라는 시민들도 많았다. 다시말해 한나라당이 호남은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 돼가고 있는 것이다.

◇사과 발언 내용=강 대표는 이날 “당 대표로서 오늘 호남에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모두 발언을 시작한 뒤 바로 사과의 말을 이었다.

강 대표는 자신이 사과의 주체가 된 것에 대해 “당의 최종 책임을 맡고 있는 당 대표이고 또 민정당 시절부터 시작해서 5선의 오랜 정치경력을 갖고 있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최저임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10일 낮 광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호남분들에게 섬섬하게 해드렸던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할 뒤, “호남을 깨어난다는 말 감히 쓰지 않겠다. 호남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고 싶고 저희의 뛰는 맥박을 전해드리고 싶다.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를 끌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역지사지해 보면 호남 분들의 한나라당에 대한 섬섬함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며 “예를 들어, 호남선 복선화에 36년이 걸렸고, 광주-목포 고속화도로 완공까지 17년이나 걸렸다. 인재 발굴과 활용면에서도 과거 아쉬운 점이 많았다. 그 외에도 한나라당이 반성할 일이 많지만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의미와 배경=‘호남 사과’ 문구는 박근혜 전 대표 때부터 한나라당 내에서 거론됐던 것이다. 하지만 결국 박 전 대표는 영남을 대표하는 대선주자라는 점 때문에 결행하지 못하고 비교적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강 대표가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

〈2면으로 계속〉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무안공항 내년 개항”

秋건교 “기업도시 성공 위해”...예산대책은 안박혀

추방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무안국제공항을 내년중 조기 개항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대한상의에서 열린 ‘무안기업도시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무안기업도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분위기가 성숙된다면 무안공항의 개항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또 “기업도시 사업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적용을 배제하고 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규제를 완화하며,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확정,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 장관의 이날 조기 개항 발언은 지금까지 건교부가 무안공항의 개항시기를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2008년 이후로 연기시켰던 기조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감사원도 지난 2003년 완공 예정이었던 무안공항의 완공시기를 2006년으로 일차 연기했었다.

또 추 장관은 조기 개항에 따른 예산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추 장관의 발언이 현실화 될지는 의문이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무안국제공항은 전남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일원 78만평 부지에 3천400억 원을 투입해 건설중이며 97년 공사에 착공해 현재 87%의 공정을 보여 2008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열린 무안기업도시 투자유치설명회에서는 한국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한지방은행공제회, 우리자산운용, 부국증권 등 9개 금융기관이 무안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금융협의체를 구성하고 발족식을 가졌다. 무안기업도시 금융협의체는 앞으로 자본금 출자를 포함한 투자자금 조달과 프로젝트 펀드 조성, 금융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자문 역할, 기업 유치 및 홍보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한다.

또 무안기업도시개발부는 이날 정보통신 기업인 ㈜우텔레콤 등 7개 기업과 총 1천500여여원의 투자협약을 맺고 조인식도 가졌다. 이밖에 한중경제산업단지에 투자할 남양건설, 토마도홀딩스 등 3개 기업과의 투자협약도 이날 행사장에서 이뤄진다.

무안기업도시는 전국 최초의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로 현재 중국과 한국기업의 투자협약이 진행중이다.

ROLEX

6월 11일 롤렉스 공식 판매점 방문할 모든 고객께 감사드립니다. (062)226-3000

콜금리 또 인상...年 4.5%로 韓銀 0.25%p 올려...올들어 세번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콜금리를 연 4.5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10일 발표했다. 통화위는 이와 함께 유동성조절대출금리를 연 4.25%로, 총액한도대출금리를 연 2.75%로 각각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번 콜금리 인상은 작년 10월 이후 5번째 인상에 해당한다. 올해 들어서는 세번째로 지난 6월 이후 다시 올린 것이다.

〈관련기사 8면〉

그동안 열린우리당과 재정경제부가 경기침체 속 콜금리인상이 경기회복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콜금리 인상에 강한 반대 입장을 보여왔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정부·여당과 통화당국간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채권시장 등에서 채금경지표의 불안 등을 이유로 콜금리 동결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통화위가 콜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은 물가 압박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한은의 기본 입장을 관철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필수기자 bungy@



2007 대입 수시 2학기 모집전형 ▶5면

- 남부대학교 (남부대학)
 - 신입생 모집 0202-970-0114 ~ 0118
 - 062-2610-5007
- 전남과학대학
 - 신입생 모집 062-360-2933 ~ 2935
 - 062-360-5000
- 국내 최고의 물가전문지 **綜合物價情報**
 - http://www.kpi.or.kr
 - 1677-7900 FAX: 1681275-8802